

재생지 사용 도서 출현의 의미

몸담고 있는 매체의 특성상 하루에 수십권에 이르는 책들을 대강이라도 훑어봐야 한다는 사실은 '책읽기의 피로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최근의 신간도서들을 살펴보면 표지를 비롯한 책전반에 걸친 '장정'이 확실히 세련돼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세련'이라는 의미를 꼽으려는 책 한권을 발견했다.

요즘 한창 봄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환경도서'의 일종인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말고도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걸맞게 재생지를 사용했다는 점의 의외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아직도 식목일이 공휴일로 '생존'해 있고 산림 보호를 위해 몇몇 국립공원 일부가 잠정적인 폐쇄를 하는 등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지는 못한 채 '운동'과 '구호'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하'가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이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아닌 '구체적 실천'에 있지 않은가 싶다.

80년대 이후 출판계에 밀어닥친 고급 모조지 사용붐은 책의 내용보다는 '모양새'를 중시하는 출판풍토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출판사 측은 "폐지 회수율과 재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존가치보다 실용가치가 높은 책은 無光광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수입을 줄이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환경관계 도서는 재생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한다.

부실한 내용을 '눈가림' 하기 위한 '과대포장'은 결국 '별볼 일 없는' 책의 가격만 상승시켜 독자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겠다. 물론 모든 책들이 종이질을 낮추고 외형은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책의 내용과 성격에 맞는 편집과 외형을 갖출 때, 의식있는 독자라면, 예의 그 '세련미'를 감지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중에 폼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수요가 적은 재생지를 쓴 탓에 종이생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보도자료'의 한구절이 다소 거슬리기는 해도, 출판계에까지도 불어닥친 과소비 열풍을 반성케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등장은 우선 반갑게 받아들여진다.

— 정소연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79호 / 1991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부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九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權宰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復 |
| 金泰賢 | 金泰亨 | 林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愼鍾夏 | 安承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淑淑 | 李瑛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龍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在圭 | 鄭義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鎰 | 崔鍾庫 |
| 韓相賢 | 韓勝憲 | 許順烈 | 洪延善 |
| 黃鉉燦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까지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인간생활의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서 엮은 「기네스북」 한국어판이 최근 신아사에서 출간됐다.

1955년 기네스 브루어리에 의해 영국에서 창간된 이 책은 현재 262판 35개국어로 출판되고 있으며 그 판매량은 90년 10월말 현재 6500만 부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책이 되었다.

이 책에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각종 진기록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잡다하고 세세한 정보 등 총 1만5천건의 놀랍고 흥미로운 기록들이 총천연색 화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음에 이 책의 기록들 중 책 또는 출판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최대의 서적: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간행된 「수퍼 북」으로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크기는 2.74×3.07m며 무게가 252.6kg이나 된다.

▲가장 긴 소설: 프랑스 작가 루이 헨리 장 파리골르(1885~1972)의 「Les hommes de bonne volonté」는 27권으로 1932년에서 1946년까지 집필되었다.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 1403년에서 1408년까지 2천명의 중국학자들이 편찬한 1만1095권 2만2397장으로 된 「永樂大典」이다. (현재는

370권만 남아 있음)

▲인명사전(Who's who): 사람찾아보기 「Who's who」(1848년 발간)에 가장 길게 등재된 사람은 윈스턴 레오나드 처칠경(1874~1965)으로 1965년 판에 211줄로 기재되어 있다.

▲최고가의 책: 「The Gospel Book of Henry the Lion, Duke of Saxony」(1170년)는 226장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814만 파운드에 팔렸다.

▲가장 비싼 寫本: 1980년 12월 12일 런던 크리스티에서 경매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36페이지짜리 「레스터 手稿」(1507년)로 아만드 햄머 씨가 220만 파운드에 매입했다.

▲최대 거절 작품: 1966년 길버트 영(1906년생)이 쓴 15만 단어의 「World Government Crusade」원고는 출판업자들에게 242번(1990년 6월까지) 출판 거절을 당했다.

▲발간까지 최다 시간이 걸린 책: 「표준 독일어사전」은 그림 형제가 1854년에 시작하여 1971년에 끝냈다.

▲가장 빠른 출판: 프레드릭 메이 선경의 「저택역사」(Ropley Past and Present)는 스캔 레저 인쇄사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메이트

에디션 출판사의 디스크로 12시간 26분만에 출판되었다.

▲최장기 대출도서: 1609년 독일에서 출간된 「Archbishop of Bremen」이라는 책은 로버트 윌폴이 1667년에 '캠브리지 시드니 서섹스 대'에서 빌려 갔었고 그후 존 플람브 교수가 노퍽의 '마르케스 도서관'에서 발견, 288년 후이나 되돌려 주었다. 연체료는 정확치가 않다.

▲베스트셀러 기록: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최장기간 기록되었던 작품은 M. 스크렛의 「The Road Loss Traveled」로 1988년 10월 2일까지 258주간 올라왔다.

▲가장 느리게 팔리는 책: 데이빗 윌킨스가 콤포터어 라틴어로 번역한 신약성서로 1716년 옥스포드 대학 신문 출판사에서 500부가 출판되었다. 평균 20주에 1권씩 팔리는 꼴.

▲최고의 원고료: 미국의 데보라 슈나이 부인은 1958년 플리머드 자동차 광고문 컨테스트에 그녀의 문장이 당선됨으로써 죽을 때까지 매달 5백달러씩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보통의 수명을 누리다고 할 때 1단 어당 1만2천달러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고의 선수금: 제임스 클라벨의 「Whirlwind」에 대해 1986년 1월 11

일 윌리엄 모로사가 선수금으로 5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최대 오자: 1978년 8월22일자 「The Time」지의 19페이지에 교황 바울 6세에 관한 글로 5½짜리 칼럼에 97개의 오자가 있었다.

▲최다 부수 발행 간행물: 주간지 「US TV Guide」지는 1974년 한 해에 10억부를 발행, 사상 최대 부수 발행 주간잡지가 되었다.

▲최대 인쇄 주문: 초판 인쇄로 가장 많은 주문을 한 책은 제58회 자동차 협회지 「Member's Handbook」(1990~1)으로 615만3천부를 주문했으며 이 분량은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7배에 해당된다.

▲최초의 도서관: 니네베(BC 668~627)의 아서바니팔왕 기록보관소로 BC23세기 아고데 왕조 때의 기록까지 거슬러 사건과 개인적인 기록을 점토판에 해두었다.